



6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폭행/상해범죄의 48.0%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, 46.8%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다.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23.3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2.3%), 직장동료/친구(6.9%), 애인(4.0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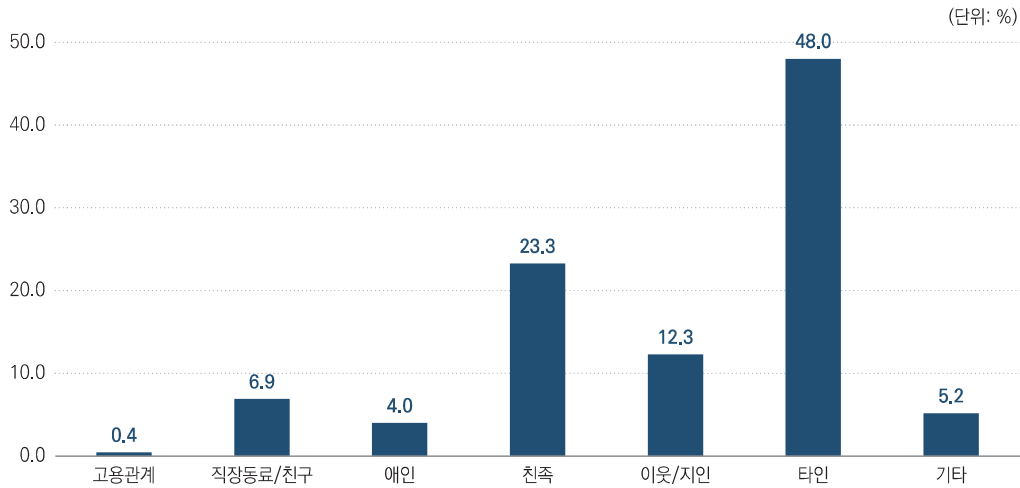


그림 53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6. 절도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1년 총 166,782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36.0%가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고, 25.7%는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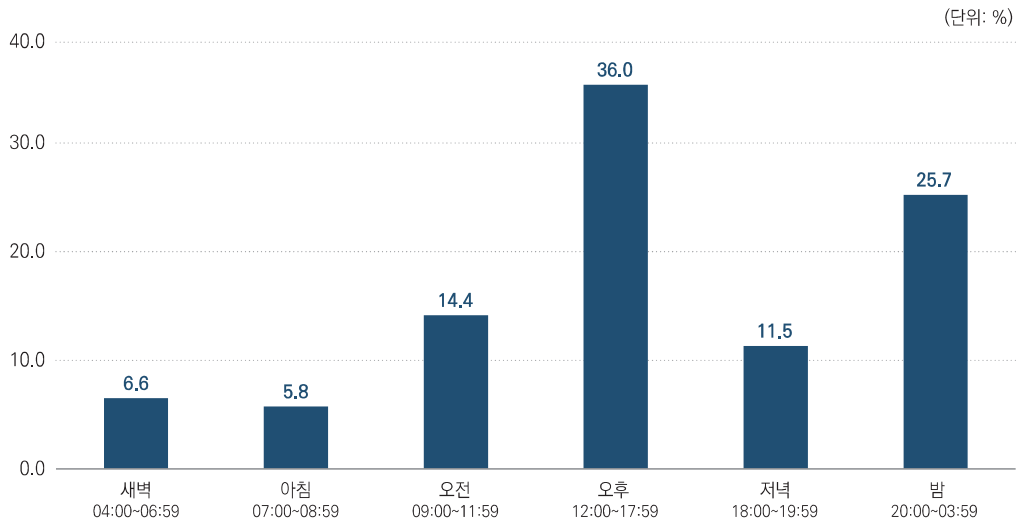


그림 54 절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) 범죄발생장소

- 절도범죄의 발생장소는 기타(21.8%)를 제외해보면, 노상이 27.9%로 가장 많았고, 이외에도 상점 24.3%, 주거지 15.0%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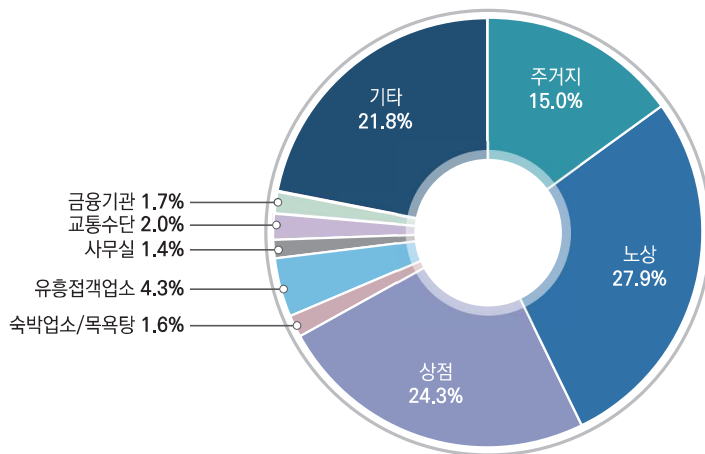


그림 55 절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3) 범행수법

- 절도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(81.6%)를 제외해보면, 침입절도가 9.1%로 가장 많았고, 치기절도²² 8.6%, 속임수절도²³ 0.6%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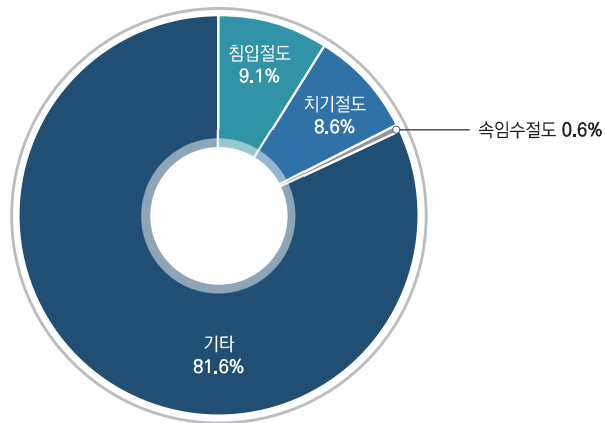


그림 56 절도범죄의 범행수법

4) 재산피해정도

- 절도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살펴보면,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38.6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1만원 초과~10만원 이하가 33.4%, 100만원 초과가 13.1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전체 절도범죄사건의 86.9%가 100만원 이하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.

22 치기절도는 발생통계원표 상 '소매치기', '날치기', '들치기'의 범죄수법을 의미

23 속임수절도는 전화를 걸어 업주를 밖으로 유인하는 등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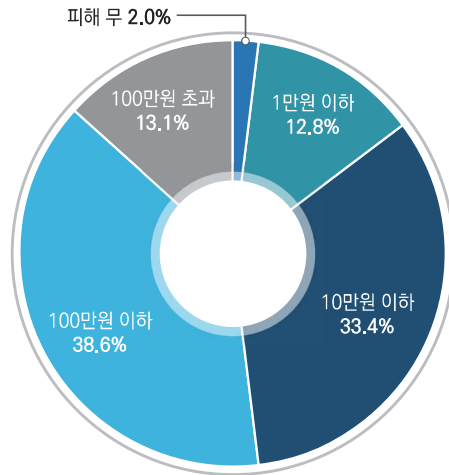


그림 57 절도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

5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71.4%가 남성이며, 28.6%가 여성이다.
- 절도범죄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61세 이상이 전체의 29.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51세~60세(18.4%), 18세 이하(14.8%) 등의 순이었다.
- 절도범죄 범죄자는 18세 이하, 19세~30세, 31세~40세의 연령대에서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, 41세~50세, 51세~60세, 6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범죄자는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, 여성범죄자는 높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였다.

표 34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1,248(18.3)	1,467(6.0)	12,715(14.8)
19세-30세	9,243(15.1)	2,729(11.1)	11,972(13.9)
31세-40세	6,653(10.8)	2,515(10.2)	9,168(10.7)
41세-50세	8,056(13.1)	3,334(13.6)	11,390(13.3)
51세-60세	10,742(17.5)	5,047(20.6)	15,789(18.4)
61세 이상	15,440(25.2)	9,458(38.5)	24,898(29.0)
계	61,382(100.0)	24,550(100.0)	85,932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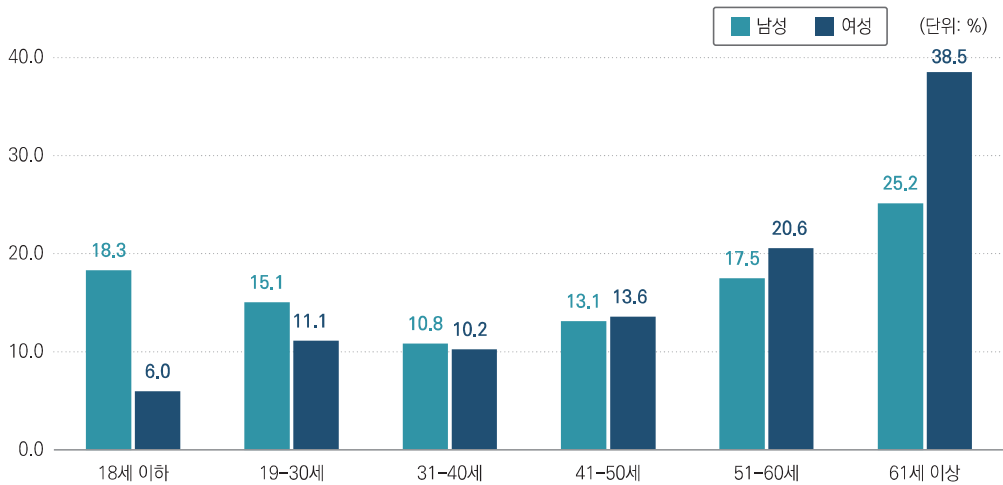


그림 58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6) 범죄자의 전과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62.0%는 전과가 있었다.
-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전과자 비율은 차이를 보여,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37.7%인 반면에, 성인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66.7%로 소년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다.

표 35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 여부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전과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전과없음	7,717(62.3)	21,720(33.3)	29,437(38.0)
전과있음	4,674(37.7)	43,416(66.7)	48,090(62.0)
계	12,391(100.0)	65,136(100.0)	77,527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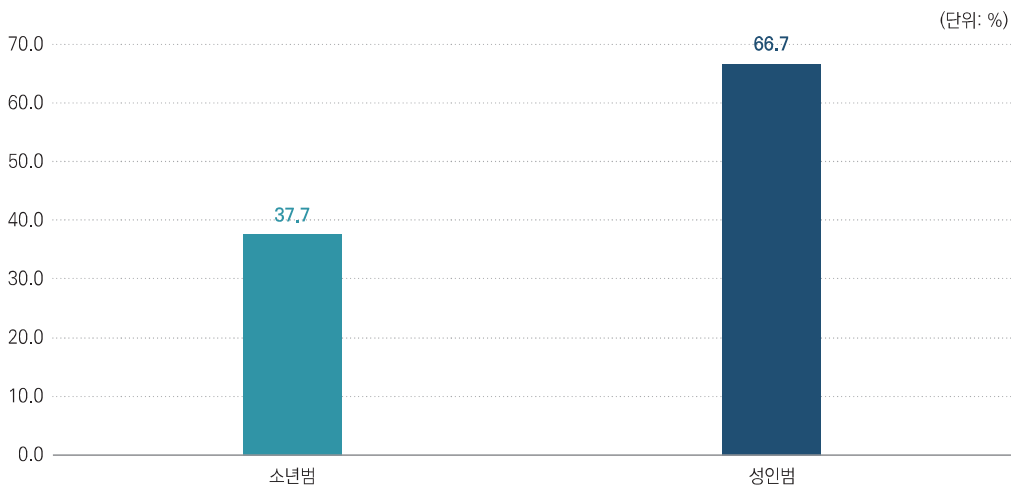


그림 59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자 비율

7) 범행동기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, 우발적 범행이 37.3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은 기타이욕(19.2%), 생활비 마련(8.4%) 등의 순이다.
-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호기심/유혹(소년범 22.5%, 성인범 1.7%)에 의해서나 유흥/도박비 마련(소년범 4.3%, 성인범 0.6%)을 위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-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이욕에 해당되는 생활비 마련(8.2%), 유흥/도박비(4.3%), 기타이욕(14.9%)이 27.5%를 차지함에 따라, 우발적(28.7%) 범행과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 범행의 원인임을 나타낸다.



표 36 절도범죄 범의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행동기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생활비 마련	1,019(8.2)	5,456(8.4)	6,475(8.4)
유혹/도박비 마련	534(4.3)	400(0.6)	934(1.2)
기타이욕	1,849(14.9)	12,987(20.0)	14,836(19.2)
호기심/유혹	2,789(22.5)	1,079(1.7)	3,868(5.0)
우발적	3,553(28.7)	25,291(38.9)	28,844(37.3)
기타	2,631(21.3)	19,834(30.5)	22,465(29.0)
계	12,375(100.0)	65,047(100.0)	77,422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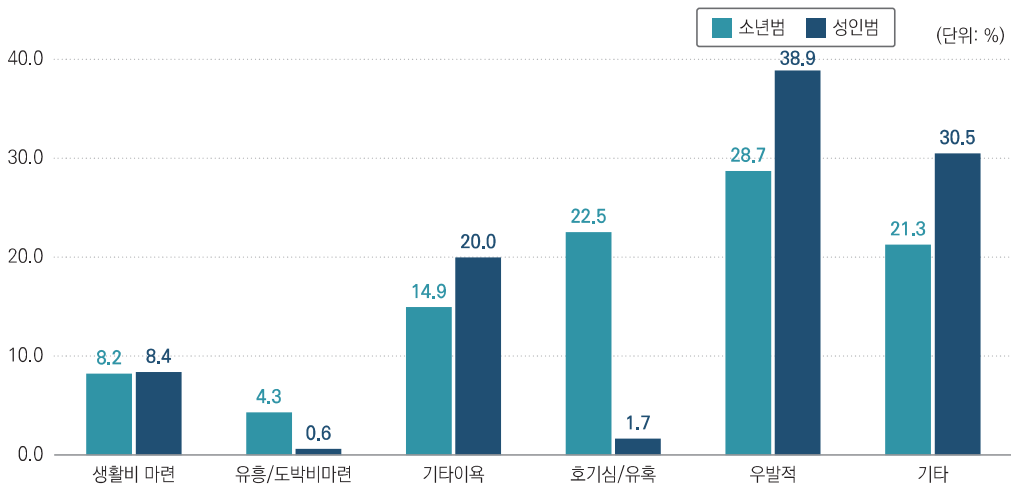


그림 60 절도범죄 범의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7. 사기

1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2021년 총 297,981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.
-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60.2%, 여성이 39.8%였다.